

사이버 민주주의 새로운 공동체를 꿈꾼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문화론의 홍수, 그리고 정보화시대의 담론이 우리 사회를 풍미하면서 어느새 공동체의 이념이 퇴색되어 가고 있다. 공동체란 연대의식을 뜻한다. 연대의식은 더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한 토대라고 할 수 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고립되고 파편화된 개인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런 공동체 파괴 현상에 대해 대안을 모색한다. 사이버기술의 급격한 진보 속에서 새롭게 제시되는 연대의식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전개된다. 가상공간에서의 공동체 건설을 추구하는 이들은 바로 이러한 목표 아래 시험을 해가고 있다. 아직은 가상공간에서의 공동체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는 미지수이다. <편집자>

인간은 자신의 행위와 사고의 규범을 사회에서 구한다고 한다. 따라서 사회적 유대감이 상실되고 결국이 약화되면 사회적인 신념과 가치체계는 물론 개인의 그것까지 위태롭게 된다. 결국 사회주의의 개인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표류하는 무규범 상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른바 아노미가 그것이고 정신적 공황상태를 면치 못하게 되는 것이다.

공동체란 이제까지 개인에게 일정한 규범을 제공하는 하나의 틀로써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80년대의 치열한 연대의식은 최소한 90년대에 와서 그 가치가 많이 희석된 것도 사실이다.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맑시즘의 퇴조, 포스트모더니즘의 극성은 공동체에 대한 당위성을 약화시키는데 불을 당겼다. 흔히 해체와 혼돈, 더 나아가 세기말적 풍조라고까지 일컬어 지는 지금 또 다시 공동체를 발원하는 것은 열길로 새로 한참을 새는 것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해체와 혼돈이 그야말로 세기말적 정후라기 보다는 어떤 문명사적 전환의 씨앗이라고 생각한다면 바로 지금이 또 다른 세기를 논해야 할 시점일지도 모른다. 80년대가 우울과 엄숙함 속에서 공동체를 논의했던 시기라면 1997년의 공동체는 보다 자유로운 사고 속에서 논의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가히 부정적인 가치체계의 혼란이라는 토양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았기 때문이고 역설적으로 모든 사고와 논의의 틀을 짓누르던 하나의 이론이 붕괴되고 있는 지금의 시점이 생자의 여지를 넓혀놓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동체적 삶을 지향하는 실천의 양상

도 여러갈래로 진행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가상공간에서의 공동체 만들기 작업은 최근의 정보화사회에 대한 관심의 정도와 비례해서 관심을 더해가는 것중의 하나다. 가상공간의 급격한 부상은 기술적인 측면 못지 않게 사회학적 측면에서도 관심거리다. 공동체를 생각할 때 주요한 분야로 떠오르는 것도 참여자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 자기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는 현실에서 기인한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가 성숙할수록 공동체의 의미가 퇴색되어 온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그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발언 과 의견개진의 기회제공은 절차적으로 나마 민주주의의 원형을 구현한다

만큼 자본의 힘은 개인을 고립시키고 공동체적인 삶의 의미를 가지지 않은 것으로 만들어 온 셈이다. 따라서 정보공간 즉 가상공간은 자본의 역량이 총 집결된 곳이라는 점에서 공동체 붕괴를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이 자연스럽게 대두된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잠시 벗어나 현재의 가상공간을 둘러본다면 수많은 실천가들에 의해 가상공동체가 구성되고 그것을 토대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된다. 친근하게는 통신상의 각종 동아리들에서 생소하게는 SING(Social Information Networking

Group)과 같은 정보연대 단체까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크든 작든 공동체의 꿈을 실현시켜가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다.

문제는 이들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성격과 성과여부다. 80년대식의 치열한 조직화인가 아니면 상대적으로 느슨하더라도 다수를 포용할 수 있는 또다른 공동체인가. 일례로 SING은 '정보를 매개로 네트워크화된 주체들의 수평적 참여에 의해 유지되는 상호협력적인 사회체제를 지향'한다고 자신들의 활동방향을 밝히고 있다. 즉 평등과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체를 지향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들의 노력이 어느만큼의 결실을 맺게 될지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최소한 가상공간에서의 공동체 논의가 현실공간에 어느만큼 영향력을 발휘할 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많이 있다. 그러나 최근 국가권력에 의한 통신법 제정 등 제도권의 검열의지는 가상공간의 무시 못할 영향력을 역설적으로 드러내주는 것이라 할 만하다.

인터넷으로 상징되는 가상공간은 또 다른 시험대가 될 만하다. 가상공간은 전통적인 공동체가 지니는 공간적, 시간적 제약을 뛰어넘고 있으며, 참여하는 구성원들에게 평등한 발언과 의견개진의 기회를 제공한다. 면에서 절차적이나마 민주주의의 원형을 구현해가고 있다. 현재로서는 절차상의 민주주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가상공간이 개인화, 파편화로 인해 심각한 고민거리를 안고 있는 실천가들에게 유용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지 두고 볼 일이다.

<김종현 편집 간사>



가상공간, 개인적 유대 감소 우려돼 정보매체 수용자의 능동적 참여가 관건



최소한 위계질서로부터

자유로울수 있는

가상공간은 하나의

실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 될 수 있을 것이다

보드리야르는 대중매체가 발달할수록 대중들 사이에서 의사소통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감소한다고 보았다. 이는 개인이 모든 정보를 매체를 통해서 수신할 수 있게 되면 자연히 개인간의 대화가 감소하게 되고 인간대 인간의 접촉보다는 인간과 기계의 대화가 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귀결될 수 있겠다. 같은 의미에서 하버마스는 지난 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면서 인터넷 등의 통신망은 개인간의 유대감을 증대시켜 공동체의 완성에 기여하기 보다는 단절의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는 예측을 한 바 있다.

이는 마치 텔레비전이 한 가족내의 대화를 단절시켰듯이 의사소통이나 정보교환을 활발하게 하는 매체일수록 인간간의 진정한 의사소통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이들의 예상은 통신이라는 가상공간의 본질적 속성에서 기인한다. 가상공간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물리적인 공간과 다르다. 가상공간에서의 나는 김아무개, 김아무개, 김아무개의 친구가 아니다. 나아가 김치찌개를 즐겨먹고 진한 향수냄새를 싫어하며 악수를 즐긴다는 것이 타인과의 대화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단지 통신 상에서 식별 가능한 ID가 나의 모든 정체성을 대신해주는 존재일 뿐인 것이다.

가상공간의 한계가 이러한 때 마치 현실공간을 그것이 대체할 것처럼 주장하는 것에는 무리가 따른다. 그것은 잘 짜여진 시뮬레이션에서의 환상체계를 즐기는 관음증에 불과한 것으로, 사람이 고립된 자기만의 공간에서 공동체를 논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일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 등의 가상공간이 지니는 가능성의 영역을 본다면 한마디로 일축하는 것도 지나친 속단으로 보인다. 민주적인 공론의 형성을 위해 가상공간의 가능성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라는 문제는 지금부터라도 활발하게 논의가 되어야 할 영역중의 하나다. 무엇보다도 인터넷을 비롯한 통신의 영역을 새로운 공론장으로 받아들이 필요가 있다.

유대인, 동성애자들과 같이 비교적 규모가 큰 민족집단이나 사회집단들은 유즈넷에 별도의 토론 그룹을 만들어 자신들의 공동체를

유지하는 커뮤니케이션에 이용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도 한총련이나 개별 단위 노조 등 진보적인 단체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홍보하고 단체 내의 구성원들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에 이를 이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가상공간이 근대 이후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비웃고 있다는 데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극단적인 경우 부정적인 경향이 엿보이기는 하나 사회적 지위, 인종, 성, 연령 등은 가상 공간내에서 이뤄지는 만남과 토론의 과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행사할 수 없다. 현실공간에서의 의사결정과정과정이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것도 결국은 유형, 무형의 권위적인 질서가 개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위계질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가상공간은 하나의 실험의 장으로서 자리매김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최대의 조직을 자랑하던 시민단체 경실련이 그 취지의 정당성과 폭넓은 지지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의사결정구조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사례를 보더라도 현실적인 권위 질서가 미치는 영향은 무차별적임을 알 수 있다. 반면에 공개된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가상공간은 특정 구성원의 정보독점이나 결정권의 선점과 같은 비민주성을 원천적으로 막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민주주의를 구현할 단초를 제시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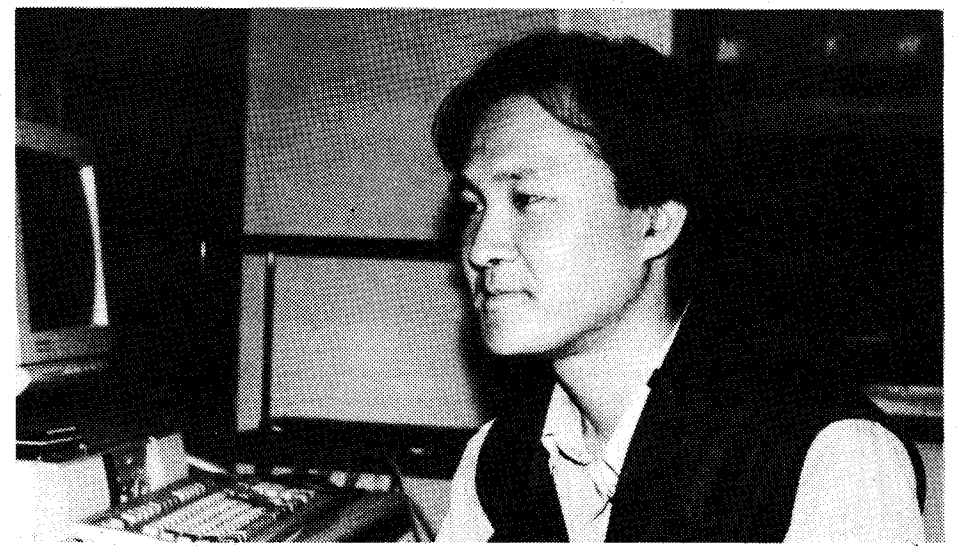
우리는 인터넷을 위시한 가상의 공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줄 것인가를 묻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특정한 기술에는 그것에 내재하는 필연적인 사용법이 존재할 수 없다. 인터넷 자체가 군사적 목적에서 개발되었다는 것을 상기시킨다면, 현재의 이용방식은 엉뚱하기까지 한 것이다. 이는 기술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가상공간도 현실공간의 연장선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사이버 공동체 혹은 사이버 민주주의에 대한 전망은 그리 부정적이지 않은 것이다. 새로운 시도와 전망, 그리고 실천속에서 가상공간은 점차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히 자리잡게 될 것이다.

<김종현 편집 간사>

인터뷰

...오병일 정보연대 간사



올바른 토론문화 정착돼야

현재 정보연대 SING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병일간사에게서 평상시 사이버 공동체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들어 보았다.

사이버 공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사이버 기술의 진보와 사이버 공간이 확대되어 가는 것에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맨처음 전화나 철도가 생겨나는 등 통신, 교통 수단이 급격히 발전하던 시기에도 사람들은 그러한 환상을 품었다. 전화나 철도는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매우 신기한 것으로 인식되었고 생활패턴이나 사회구조 전반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 되었지만 오늘날의 전화나 철도들은 더이상 신기한 것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사이버 공간의 확대도 마찬가지이다. 오늘날의 사람들도 사이버 공간에 대한 많은 기대를 품고 있지만 결국 사이버 공간은 하나의 매체로 자리잡게 될 것이며 어느새 당연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질 것이다.

그렇다면 사이버 공간이 활성화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사이버 공간이나 정보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물론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자비를 들여서라도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한다. 그러나 사회 전반에 걸쳐 사이버 공간의 역할이 증대되어 가는 오늘날의 현실을 감안한다면 사이버 지식의

습득은 사교육이 아닌 공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토론이나 세미나 등의 방법을 통해 사이버 공간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끊임없는 모색도 필요할 것이다.

사이버 민주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사이버 민주주의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할 수도 있다. 아마도 사이버 공간을 활용한 민주주의라는 말이 더 적합할 것이다. 사이버 공간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매체이며 결국은 활용하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이다. 즉 현실 공간에서의 민주적 역량이 성숙되지 않고서는 사이버 공간내에서의 민주주의도 이루어질 수 없다.

성숙된 민주적 역량의 구체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것은 분명 민주주의의 효율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치는 정치인만 한다는 생각을 깨야한다는 것이다. 정치인인 학생 혹은 직장인이든간에 다들 사회안에 여러가지 관계를 맺고 살아가므로 하나의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함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아직 토론 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우리나라에선 사회 구성원 전체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용섭 기자>